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 년 8 월 9 일

CUOMO 주지사, 전기차량 홍보를 위해 1,900 만 달러의 트럭 바우처를 출범시키다

뉴욕주에서 전기 트럭 비용을 낮추고 뉴욕시에서 대체 연료 트럭 및 디젤 방출 감소 장치를 공급하는 프로그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하이브리드 및 압축 천연가스 트럭을포함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운송 수단 뿐만 아니라 배터리-전기 상용 트럭의 구매를 이끌기 위해 1,900 만 달러 규모의 뉴욕 트럭 바우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Truck Voucher Incentive Program)발표하였습니다.

이 트럭 바우처 프로그램에는 두 개의 바우처 펀드가 포함되는 데, 뉴욕주에서 연방의 대기청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0 개 카운티, 주로 다운스테이트 뉴욕(Downstate New York), Capital Region 및 웨스턴 뉴욕(Western New York)에 제공하는 900 만 달러와 압축 천연가스, 하이브리드-전기 차량, 가스배출 제어기가 장착된 리트로피팅 디젤 엔진도 포함해 뉴욕시를 대상으로 한 1,000 만 달러 규모의 대체연료 바우처 펀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트럭 바우처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뉴욕주가 대기청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조치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출가스를 낮추고 우리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 홍보 및 이행하겠다는 뉴욕주의 약속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해 첨단 운송 기술에 중점을 둔다면 우리가 살고 일하는 커뮤니티를 더욱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NYSERDA)은 연방 인구밀집완화 및 대기질 향상(CMAQ)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뉴욕주 교통부 및 뉴욕시 교통부(NYC DOT)와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 - 8 클래스 트럭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대형 픽업, 배송용 밴차량, 박스 트럭, 버스, 트랙터 트레일러, 쓰레기수거용 트럭, 시멘트 및 덤프 트럭과 같은 건설용 차량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NYSERDA 는 차량 제조업체, 딜러, 바우처를 받게 되는 리트로핏 제공업체가 바이어에게 낮은 차량 가격으로 완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전기 트럭 바우처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적격 차량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와 함께 오늘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대체연료 바우처와 디젤 리트로핏 자금은 각기 8 월 하순과 9 월 하순에 제공됩니다.

오늘 발표는 주지사의 Charge NY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기차량 및 인프라 투자 요구를 활성화시키며 NYSERDA, 뉴욕에너지청과 조세신용제도가 제공하는 자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공공서비스위원회(PSC)에게 기존의 정책과 법규를 검토하여 뉴욕의 전기 차량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비즈니스- 및 정부-관련 운송이 보다 깨끗하고 저렴해졌습니다"라고 NYSERDA 의 사장 겸 CEO 인 Francis J. Murray Jr.가 말했습니다. "전기트럭과 함께 기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운송 솔루션을 홍보함으로써, 뉴욕주는 외국 원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지자체와 상공업체에게 보다 환경 친화적인 운송 기술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송 부문은 원유 소비의 3/4 과 뉴욕의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대체연료 차량을 사용하여 배출가스를 줄이고 디젤 트럭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NYSERDA 는 이 프로그램이 뉴욕주에서 대기의 질이 가장 낮은 지역에서 최고 1,000 대의 저 배출가스 트럭의 구매 또는 리트로피트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운송이 경제 발전의 핵심이고 이 새로운 바우처 프로그램이 이러한 경제 발전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뉴욕주 교통부의 Joan McDonald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CMAQ 개선 프로그램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 품질이 향상되고 회사들에게 대체 연료를 구매하도록 장려하며, 뉴욕주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흥 업체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로 이미 수 십 곳의 업체들은 뉴욕시 거리에서 보다 깨끗한 차량들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NYC DOT Janette Sadik-Khan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금의 투입으로 이제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하고 추가로 500 대의 트럭을 청정 기술로 전환시킬 수 있어서 모든 뉴욕 주민들의 건강 도모와 경제 향상을 위해 뉴욕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900 만 달러가 기업, 비영리 단체,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이 전기 트럭과 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 6 만 달러에 이르는 바우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국립대기환경기준(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을 충족하지 않는 뉴욕주의 30 개 카운티에 제공되며, 3-8 class 배터리-전기 트럭용에 한합니다. NYSERDA 는 Truck VIP 에 참가하는 전기장비 제조업체들에 AMP Trucks Inc., Boulder Electric Vehicle, Electric Vehicles International 및 Smith Electric Vehicles 가 포함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 600 만 달러는 뉴욕시에서 압축천연가스(CNG), 하이브리드-전기 또는 배터리-전기 트럭을 구입 또는 리스할 수 있도록 최고 4 만 달러에 이르는 바우처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인센티브에는 디젤 트럭에 CNG 동력을 재공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자금은 뉴욕시에 소재하면서 70%의 시간을 사업체 운영에 쏟는 모든 민간업체 및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8 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가 제조업체 목록은 프로그램이 개시될 때 제공됩니다.
- 4 백만 달러는 배기가스 후처리장치와 같이 중대형 디젤 트럭에 장착하는 배출저감장치의 구입 및 설치 시 최고 80$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자금은 뉴욕시에 소재하면서 70%의 시간을 사업체 운영에 쏟는 모든 민간업체 및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9 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청정운송기술업계의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CALSTART 는 NYSERDA 의 바우처 프로그램 지원하는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NYSERDA, NYSDOT, 뉴욕시와 파트너가 되어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 CALSTART 의 John Boesel 사장 겸 CEO 가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개발하신 이와 같은 주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대기를 깨끗이 하고, 기후 변화를 예방하고, 상용차 부문의 혁신을 주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써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라고 Boesel 사장이 말했습니다.

뉴욕 트럭 바우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s://truck-vip.ny.gov/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